

국회 통과 한-EU FTA 비준안 7월부터 발효

축산업·골목상권 대책이 없다

양돈 직격탄... 전남 농업생산 年 219억 ↓
SSM 규제법 무용지물 중소상인 피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농업이 축산업을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 한-EU FTA가 예정대로 7월부터 발효될 경우 수산업계는 통발업 피해가 예상되고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도 무용지물이 돼 골목상권이 붕괴되면서 중소 상인들도 생존의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4·8면>

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되면 전남에서만 농업생산 감소액이 연간 219억원에 달할 것

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91.7%인 201억원이 축산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축산업 기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채소·특작(13억원), 과수(3억원), 곡물(2억원)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양돈농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삼겹살 시장에서 EU산 점유율은 73.6%에 달한 데다 가격도 국내산의 66% 수준에 불과해 FTA 발효로 수입량이 늘어날 경우 양돈기반을 뿌리부터 흔들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은 쇠고기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을 초래해 한우농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산업계는 관세 철폐로 새우·굴·뱅이·문어 등을 잡는 통발업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하면서 채산성 악화로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 상인들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유통법과 상생법 등 SSM 관련 법을 제정해 무너져가던 골목상권을 지킬 수 있다고 한숨을 돌렸는데 FTA로 인해 국내는 물론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또다시 시장을 뺏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FTA 조약에 의거해 EU가 국내 유통법 등을 제소하면 국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FTA 협정문의 보조금 금지 조항때문에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FTA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도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 등은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특화해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산업육성보조금 등 지자체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순천대 이기웅 교수(농업경제학과)는 “을 연말을 목표로 추진중인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전남지역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간 1158억원, 향후 15년간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전남 농업어업의 지역내총생산(GRDP)의 3.3%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5일 광주시 남구 월성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호풍버'를 육묘하던 모판을 뒤엎고 있다. 이들 농민들은 정부 보급종 '호풍' 법씨의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서명주기자 mjna@

‘씩 안트는 법씨’ 책임공방

종자원 “이상기온 때문” 농민들 “소독처리 잘못”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발생한 정부 보급종 ‘호풍버’ 발아(發芽) 지연(광주일보 5일자 1·3면) 원인을 둘러싸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발아 지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당국의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모판을 갈아엎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 등은 6일부터 발아 지연으로 인한 피해 조사가 나서기로 했으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식량작물과학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수확철·불철 이상기온? =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지난해 불철부터 이상기온이 지속되고 가을철 수확철에도 잦은 비가 내려 벼 낫날이 제대로 여물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올해 보급종으로 공급된 ‘호풍’ 법씨 역시 이러한 기상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불철 이상기온으로 인한 저온 현상도 거론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30년(1971~2000년) 평년 4월 평균기온이 12.9도(최고 19.3·최저 7.3도) 였던 반면 올해는 평균 10.7도(최고 18.8·최저 6.5도)로 낮았으며 12일 1.8도, 14일 4.2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종자 소독약이 문제? = 반면 농가들은 농가보급 전에 국립종자원이 카다리병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정 소독약을 분무살포 처리하는 것을 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올해는 기존 약제 대신 새로운 약제가 투입됐다.

농가들은 친환경 재배용으로 공급된 ‘호풍’ 법씨는 이상이 없는데, 소독 처리된 일반 종자용에서만 발아 지연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2월 9~10일과 3월 16~30일 2차례에 걸쳐 전남지역 농가에 ‘호풍’ 법씨를 보급했으며, 지난해 27일께 신안과 곡성에서 발아지연 민원이 첫 제기된 후 피해가 확산되자 전량 수거명령을 내렸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올해 사용한 약제는 종자소독용으로 등록되고 허용된 것”이라며 “연관성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전남도 농업기술원 등 농정 관계자들은 6일부터 피해 조사에 착수기로 했다. 호풍버 농가 사용량을 비롯해 ▲정상육묘·포기 정도 ▲자가종자 확보 여부 ▲대체종자 희망 품종 등을 중점 조사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최근 식량작물 과학원에 시료를 보내 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본부 역시 TF팀을 꾸려 9~10일 전남 피해지역을 찾아 자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서명주기자 mjna@

한-EU FTA 비준안 野 불참속 국회처리

국회는 4일 밤 본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9명 중에서 찬성 163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여·야·정이 지난 2일 비준안과 동시 처리키로 합의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개정안과 FTA 놓여있던 지원특별법안은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마지막 의회에서 “오늘(4일)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이어 단독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했으나 민주당은 의회에서 본회의 불참으로 반대 표시를하기로 결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에 ‘태양광 테스트 베드’ 들어선다

2013년까지 230억원 투입 구축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정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태양광 분야 사업지로 광주가 최종 선정됐다.

테스트 베드란 실험·실증이 이뤄지는 종합시설을 말한다.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밤 심사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태양광 분야에서 광주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2개 지자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비 120억원과 지방비 30억원, 현물출자 80억원 등 총 예산 230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테스트베드가 들어서는 한국생산기술원 호남본부를 비롯해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대학, 서남권청정개발연구센터 등 다수의 지역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과 신기술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성능과 신뢰성·성공가능성 등을 시험 및 실증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재균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사전검증 기반이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는 호남권뿐만 아니라 대경권과 충청권도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호남권 선도사업’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음식 **엘리시아**의 명성 그대로!

해물샤브샤브에서 이어갑니다

신선한 해물만을 사용하여
생생한 바다내음을 전해 드립니다

엘리시아 해물 샤브샤브
해물샤브샤브 용봉점 ☎062.513.4000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elysiaaa

영업시간 오전 11:30~오후 10:00
예약문의 ☎ 062_513_4000
네비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843번지

돌잔치, 칠순·회갑연, 가족모임, 세미나, 사은회
단체 연회장 10~80석 연회장 완비
영상(범프젝트), 음향, 노래방기기 무료사용

엘리시아 샤브샤브 체인점 모집!! 상무엘리시아 ☎ 062_513_4000 직통상담 010_3645_3303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